



Editor/主编
 Dr. Weiping Wu

Associate Editor/副主编
 Ms. Chu Hsiao-mi

Editorial Board/编委
 Ms. Chen Fan
 Ms. Fan Ling
 Miss Law Sau Wah, Zoe
 Dr. Lee Siu Lun
 Ms. Mak Suet Chi, Ellen
 Ms. Wang Qi
 Mr. Wong Ho-put

Production/制作
 Ms. Doris Wong



* 要 Contents 目 *

Letter From Editor 编辑的话 편집장님의 한마디.....3

Learning 学生园地 한국 학생들의 한마디
 金东俊 — 我为什么选择来香港学习中文?
 지난 홍콩에서의 4 개월을 돌아보며.....4
 权庭慧 — 来香港学习中文的原因?
 지난 홍콩에서의 4 개월을 돌아보며.....5
 元惠轸 — 我在香港的生活
 홍콩에 와서.....6
 李起青 — 我的香港经验
 결코 잊혀지지 않을 홍콩에서의 나날들.....7
 金光秀 — 只要开始就成功了一半
 중국어 배우기.....8

Teaching 教师园地 CLC 선생님의 한마디
 潘 明 — 韩国学生常犯的语法错误
 한국 학생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중국어 문법.....9-11
 韩彤宇 — 你想知道研习所的老师对韩国和韩国同学的一点意见吗?
 당신은 CLC 어학원 교사들이 갖고 있는 한국 및
 한국학생들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까?12

Korean Initiatives by CLC and Related Activities 研习所韩国项目及 Related Activities
 한국인이 주도한 CLC 어학원 관련 행사
 ♪ 研习所四十周年聚餐 / 韩国文化交流活动.....13
 ♪ 韩国学生海外升学展览.....14
 ♪ 新季晚会 / 春季旅行.....15
 ♪ 广东话、普通话桌 / 最新消息.....16

Special Issue for Korean Speakers

Online reading for CLC newsletters and the simplified character version:
<http://www.cuhk.edu.hk/clc/newsletter.htm>



新雅中国语文研习所



Korean Special Issue

한국특집 韩国专辑

Language Matters is a CLC Newsletter, which is

- a student corner for Chinese learners to share their experience and concerns
- a platform for teachers at CLC and other similar institutions to share views
- an academic corner to share findings in teaching related research
- an update with comments on all teaching materials
- a bulletin board to publicize all CLC related news and activities

Learning / 学生园地

For CLC students and alumni to share their learning experience.

Teaching / 教师园地

For Chinese teachers to exchange views.

Research / 学术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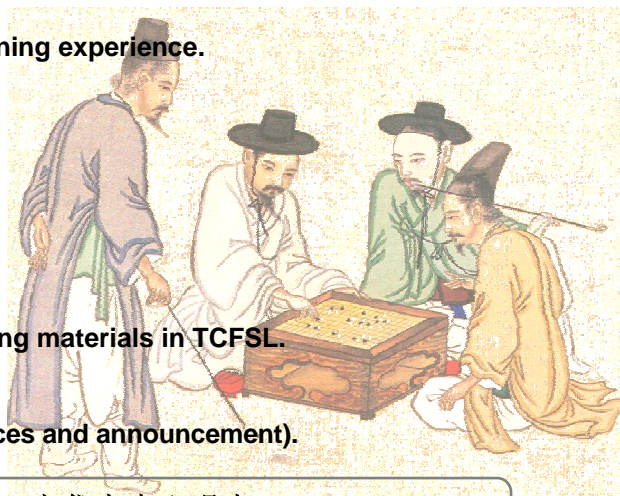
For discussions on teaching related research.

Materials / 教材信息

Updates, comments and issues related to teaching materials in TCFSL.

Activities / 中心动态

CLC academic activities (e.g. conferences, services and announcement).



本刊文章均为作者一得之见，不一定代表中心观点
What is expressed by individual contributors only represents the writer's perspective

From the Editor

Starting in 2003, Language Matters(LM) is published regularly 4 times a year. Submissions for publication are welcome from all CLC teachers, students and alumni, as well as those who are involved with either teaching or learning Chinese (including Putonghua and Cantonese). All submissions should be sent to:

Editor, Language Matters
Chinese Language Center
Fong Shu Chuen Buildi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atin, N.T., Hong Kong

Please note the following when sending us any submissions:

1. Language : Either in English or in Chinese.
2. Length : Between 300 to 500 words, no longer than 800 words in any case.
3. Focus : Should be related to either learning or teaching Chinese, including cultural aspects of language learning.

LM is distributed to about 500 to 800 programs and individuals in the field of teaching Chinese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in either electronic or printed form.

Address: New Asia--Yale-in-China Chinese Language Center,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ong Shu Chuen Building,
Shatin, New Territories, Hong Kong, SAR

Tel.: (852) 2609 6727

Fax.: (852) 2603 5004

Web site: <http://www.cuhk.edu.hk/clc>

Email: clc@cuhk.edu.hk



편집부장의 한마디

编辑的话

Letter from Editor

Dear Korean Students and Friends:

It is our pleasure to present to you a special issue of our Newsletter focusing on Korea. This is the first of such efforts, to be followed by one on Japan in due time, hopefully within this year if all materials needed can be gathered as expected. The current issue is part of our Korean initiatives, which aim at serving the needs of recent surge in enthusiasm among Korean speakers to learn Chinese.

Special thanks are due to Mr. Lee Myun-Gwan, Former Chairman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who is among one of our earlier alumni and served as a bridge between CLC and many Korean nationals in the past decade. We hope this special issue, as Mr. Lee kindly suggested, will be able to reach every Korean now in Hong Kong and kindle, or rekindle their desire to learn Chinese. CLC is also greatly indebted to all our current and former students who voluntarily shared with us their experience in leaning Chinese and their life in Hong Kong. Two of our teachers have made a special effort to provide our readers with their insights on some pedagogical issues related to Koreans learning Chine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is special issu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hard work of the Editorial Board, especially the Associate Editor and the two guest editors Ms. Ahn Eun Young, Ms. Yang Oh Kyung.



Dr. Weiping Wu
Director of Chinese Language Center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erves the needs and enhances the well-being of the citizens of Hong Kong, China and the wider world community. CLC, as part of the University, is dedicated to providing quality language programs (both Putonghua and Cantonese) to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Since inception in 1964, more than 10,000 foreign students have studied at CLC, many of which are Korean speakers. Quite a few of the Center alumni are now holding key positions in their fields.

May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one of the activities for our Korean Initiatives: the 4-week summer program, which promise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students from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They will be able to have a taste of living on the beautiful campus of the University, learning Chinese and touring Hong Kong and some cities in Mainland China during and after the program.

I sincerely hope that this special issue will help you learn more about our Center. On behalf of all CLC teachers and staff, I look forward to welcome you to our Center in the near future.



CLC Director and staff (*back row*) meet with current (*right, front row*) and former (*left, front row*) chairmen of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H.K., the representative (*middle, front row*) of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K.

지난 홍콩에서의 4개월을 돌아보며.....

我为什麼选择来香港学习中文?

김동준(金东俊, Pusan National University)



흔히 영어와 중국어는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맥락에서 CUHK 는 영어와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생각되었다. 물론, 홍콩은 영국 식민지 영향으로 인해, 미국 영어가 아닌 영국 영어를 쓰는 점, 광둥성 지방이라 중국 표준어인 보통어가 아닌 광둥어를 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국어를 배울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홍콩에서의 지난 4개월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꼭 사실이 아닌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흔히들 홍콩의 영어를 홍콩리쉬, 혹은 영국식 영어라고 부르며 또한 홍콩 사람들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일면 사실이지만, CUHK 는 대부분의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 될 뿐만 아니라, English language Center, Independent Language Center 등을 통해 폭넓은 영어 교육의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CUHK 의 조직화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학생들과의 교류 및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영어 학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金东俊 (左)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콩은 광둥어를 사용하기에 중국어 공부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CUHK 의 Chinese Language Center 에서 실시되는 중국어 수업은, 적은 학생 수, 중국 본토의 우수한 강사진으로 인해 최적의 중국어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준다. 특히, 대부분의 CUHK 학생들은 고등 교육 기간동안 보통화

수업을 받기에 대부분 중급 이상의 보통화를 구사한다. 원한다면 수업 후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바로 써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CUHK 중국 유학생 비중이 매년 높아짐에 따라, 교내에서 이들과의 언어 교류를 통한 기회도 활발히 주어지고 있다. 비록 홍콩의 공식언어가 광둥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CUHK 내부의 중국어 학습 여건은 여타의 중국

대학들보다 더욱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가끔 홍콩이 아닌 다른 영미권 학교를 지원했다라면 어떠했을까하며 생각해 본적이 있었지만, 다른 어느 곳을 지원했다라도 영어와 중국어라는 언어를 배우기에 CUHK 만큼 적합한 장소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我觉得来香港最好的就是我可以同时学习英语和普通话。中文大学提供很多英语讲的课，学生可以听自己喜欢的课，还可以跟从不一样的国家来的同学们一起讨论。此外，中大也有专门提供语言训练课程的单位，比如英语教学单位和新雅中国语文研习所。我现在在新雅中国语文研习所学习普通话，老师们都讲得很好，练习普通话的机会也很多。所以来香港交换学习的经验对我来说不比美国差。





지난 홍콩에서의 4개월을 돌아보며.....

来香港学习中文的原因?

권정혜 (权庭慧, Ewha Womans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홍콩을 지원해서 온 가장 큰 이유는 중국문화권이기 때문이다.

중국문화권이면서도 세계 여러 곳의 문화가 섞여있는 곳이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역시 예상대로 교환학생 대부분은 미국, 중국, 유럽에서 온 학생들로 섞여있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몽콕의 야시장이나 포탄의 포장마차는 중국문화를 보여주지만, 센트럴의 고층 다국적 기업들은 홍콩이 해외시장으로 향하는 아시아의 출구임을 보여준다. 네온사인이나 거리는 한자로 가득 차있지만, 웬만한 종업원들도 불편 없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어, 중국말을 못하는 나도 큰 문제없이 살 수 있었다.

내가 CUHK 를 선택한 이유는 이 학교의 중국어 프로그램이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친구도 있었고 중국어프로그램만 한 친구도 있었는데 둘 다 만족스럽다며 나에게 권했었다. 듣던 대로 중국어 수업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선생님들도 열성적으로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었고, 강의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홍콩에서 보내게 된 귀중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해외로 나와보니 역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나의 소중한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我选择来香港当交换学生，其中之一的原因是因为香港位处中国文化圈。在此我不单可体验中国文化的特色，同时我还可以练习英语。至于我选择中文大学则是因为这里的普通话课程非常有名。我想这是众所周知的，等我来到这儿我发现老师们都很认真地教学，而且课程也很有体系，的确极有效果。我希望后来的学生们也能拥有类似我这样珍贵的经验。





홍콩에 와서 我在香港的生活

Learning

学生园地

원혜진 (元惠軫, Yonsei University)

지난 4 개월 동안 홍콩에서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다양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친절한 홍콩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자 모인 각양각색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홍콩이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진귀한 것이었다. 캠퍼스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가능케 하면서 같은 중국어를 배우면서도 다양한 가치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중문대학에서 수강한 보통어 수업을 비롯한 수준 높은 강의들은 학구적인 면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돌아본 홍콩의 여러 지역 역시 아시아의 허브로서 홍콩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서울보다 특유의 동양적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양 문화의 깊은 면모를 접할 수 있는 장소는 홍콩이 아니면 찾기 힘들 것이다. 캠퍼스 내에서의 생활도 평화롭고 만족스럽지만, 학교 밖에서는 홍콩의 지리적 여건 덕분에 중국 본토나 마카오 등지로의 여행을 통한 색다른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 특히 계림과 양수로 떠난 여행은 홍콩과는 다른 느낌의 중국 본토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경험한 것과 느낀 것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남은 4 개월 동안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경험에 나는 여전히 설레인다.



我觉得在香港生活的最大好处是能认识很多各国来的学生。除了亲切的香港朋友，跟这些有不同成长背景的人说话也让我获益匪浅。而普通话课对我的学习帮助很大。大学内的生活的确安静、和平，这些都让我感到很满足。此外，像是去桂林，阳朔旅行的经验更令我十分难忘。我希望在香港最后这段时间内也能多看新的事物，并且认识更多新朋友。

결코 잊혀지지 않을 홍콩에서의 나날들 我的香港经验

이기청 (李起靑, Ewha womans University)

처음 홍콩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참 다양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홍콩이 영어권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에 의아해 했고, 사스나 조류독감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쇼핑의 천국, 환상적인 야경의 도시로만 인식되던 홍콩을 더 넓고 깊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在国际庆祝会的时候拍的照片。李起靑(右一)、权庭慧(右二)、元惠轸(中)和金东俊(左一)。



홍콩에 도착하던 첫 날, 날 반겨주던 엄청난 습도와 무더위부터, 처음 Tsim Sha Tsui 항구에서 야경을 보던 날의 감동, 그리고 주변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의 소풍과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크리스마스트리와 신년 메세지까지 홍콩은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들뜨게 했다.

중문과 학생으로서 내가 홍콩에서 누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장점은 영어와 함께 97년 중국반환 이후, 더욱 널리 쓰이는 중국어(普通话)를 함께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홍콩 현지 언어, 광둥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젠 원래 집보다 더 내 집같이 익숙해져 버린 이 곳 홍콩에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고 갈 수 있을까? 홍콩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CUHK 에서 공부하며 알게 된 학구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리적 이점 때문에 손쉽게 갈 수 있었던 마카오, 계림, 북경으로의 여행이 안겨준 소중한 추억들을 벌써부터 그리워하며 남은 홍콩에서의 나날들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 나가고 싶다.

我记得我来香港的第一天, 那天的天气很湿、很热。我还记得第一次看香港夜景的那一天, 第一次去看香港的小岛的那一天, 圣诞节时的很多装饰, 新年时那华丽的火花, 我在香港生活的日子已经不少, 直到今天, 香港每天改变它的样子让我激动。我还能得到很宝贵的机会, 练习普通话和英语。我来香港以前很想学广东话, 但是在韩国很难找到教广东话的地方, 在中文大学新雅中国语文研习所 (CLC) 学习广东话跟普通话, 对我来说很有意义。我已经太习惯住在香港了, 想知道我余下的日子还能看多少, 经验多少。我感谢在香港遇到的珍贵的姻缘, 在中文大学让我苦恼的学习难题, 去澳门、桂林、北京旅行的回忆, 剩下的日子也要多看、多体验, 好好儿地过下去。

Learning

学生园地



只要开始就成功了一半

Learning

学生园地

중국어 배우기

김 광 수 (2005년 4월) 金光秀

약 2 년전 어느 날 , 한 친구가 중문대학에 등록하여 중국어를 함께배워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실제 홍콩에 오기 전부터 중국어 공부를 해 볼 생각은 있었으나 항상 일이 바쁘거나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는 핑계로 그동안 미루던 참이라 저녁 시간 (일주일에 나흘)을 내어 공부를 시작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 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SARS 의 영향으로 그 해 5 월에야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있습니다. 눈감작할 사이에 2 년이 지났는데, 나의 중국어 실력이 아직 중급에도 못 미치지만 기본 수준은 지났다고 자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만 잘하면 중국어 실력은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매년 고속성장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고려한다면 중국어 회화는 필수적이며,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중국사람과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공부를 하려는 특히 많은 한국 사람들 생각이 중국어는 발음이나 성조가 영어에 비하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그로 인하여 중국어 공부를 미루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중국과 한국은 서로간의 문화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영어 공부하는 정력의 반만 투자해도 중국어 공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의 최고 실력을 100 점 이라 한다면 아직 본인의 실력은 20 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어 방송을 이해하고 중국어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 되려면 60 점 정도는 되어야 할텐데, 아직 2-3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비록 핑계이긴 하지만 나이도 들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 지는데,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 지도해 줄 지 걱정입니다만 계속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2년여 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집 사람이, 이미 나이도 50 이 넘은 사람이 이제 와 무슨 외국어 공부를 새로 시작한단 말이나?고 얘기 하기에 60 이 되어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늦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포기하려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입니다.

大概两年前的一天，有朋友问我要不要在中文大学学习中文，其实在来香港之前我有学习中文的打算，但因工作忙、年纪大等等理由，没有开始学习中文，最后我决定接受朋友的建议用每天晚上（其实一个星期四天）学习中文了。

2003年初决定的学习中文的计划，因SARS的影响推迟了，到2003年5月才开始学习，韩国有一句话——“开始就成功了一半”。

现在大概两年过去了，我的中文还达不到中等水平，可能只是超过了最基本的水平，但我还是满意，其实在香港工作的时候，只要会说英文就没问题，中文不流利也没什么问题，但如果考虑每年都高速发展的中国市场，学习中文是必须的，我相信学习中文可以更好地了解中国人和中国市场。

韩国人都认为，中文的声调和发音比英文难得

多，我也是因此原因推迟了学习中文。但事实上，因为中韩文化背景相似，只要好好学习，拿出一半学习英语的精力就能学好中文，我认为中文比英文更容易学习。

如果中文最高水平为100分的话，我觉得我现在的水平可能有20分，为了能看、听电视上的国语新闻，看懂中文报纸，就是说想拿60分的话，可能还要学习2—3年，怕老师们不能耐心地教我了。

两年前打算学习中文时，妻子说“已经50多岁了还学什么外语”，但我认为如果到60岁学习的话就更晚了，所以我开始学习了。

希望大家不要觉得自己年纪大了放弃学习，现在开始学习吧，那样的话，大家一定不会后悔的。



韩国学生常犯的语法错误

潘明老师

韩国学生常犯的语法或用词方面的错误,大概是由以下三种原因造成的:

- 一. 中文某些句型或词语在韩文中没有类似的表达方式,所以学生较难掌握.
 - 二. 中文及韩文中有类似的表达方式,但句型或用词并不相同,在学习时容易受到干扰.
 - 三. 中文及韩文的表达方式相同,但学生却以为不同,或以为中文和英文相似,因而说错.
- 绝大部分的错误都是出于第一或第二种原因.

以下是简单的说明:

1. 在韩文中,动词总是置于句末,宾语及主语在前,而动词前各词的词序有较大的自由度.因此,韩国学生其中一个最常见的错误就在于宾语的位置.
特别是韩文中没有‘动宾结构’,所以韩国学生较难掌握.
病句举例: **毕业大学** (大学毕业); **见面他** (跟他见面);
结婚过两次 (结过两次婚); **有兴趣这件事** (对这件事有兴趣);
找了半天你 (找了半天); **给一本书我** (给我一本书)
2. 因韩文是动词在后,有些韩国学生说中文时,特别是在说较长的句子时,容易落掉句中的动词.
病句举例: **我先公共汽车** (我先坐公共汽车);
我的辞典很旧的 (我的词典是旧的);
在五班学中文的学生韩国人 (在五班学中文的学生是韩国人)
3. 韩文的动词有时态.对于过去发生的事,不管是否应该,某些韩国学生总会习惯性地加上一个‘了’;还有,加‘了’以后,宾语的位置也是一个问题.
病句举例: **我以前认识他了** (我以前认识她);
昨天晚上八点我正在看电影了 (昨天晚上八点我正在看电影);
谈话了一会儿 (谈了一会儿(话))
4. 韩文中没有与中文类似的‘程度补语’结构,而是以‘副词+动词’的方式表达.比如‘做得很好’,韩文的说法是‘好做(过去式)’;而中文‘好好做’和‘会好好做’,韩文也是用相同的句型,只是动词是现在式或将来式.
病句举例: **说汉语得很好** ((说)汉语说得很好);
我做饭很好 (我做饭做得很好);
她长跟爸爸一样 (她长得跟爸爸一样)
5. 韩文只有极少数与中文类似的‘结果补语’,中文绝大部分的‘结果补语’在韩文中都是以‘副+动’的方式表达.比如‘做完了’,韩文的说法是‘都做了’;‘写对了’是‘对地写了’.另外,韩国学生对某些‘结果补语’的含义有误解,比如容易误会‘做好了’是‘做得好’的意思.
病句举例: **完了吃饭** (吃完饭了); **对地做了** (做对了)
6. 中文的‘可能补语’在韩文中有类似的结构,但没有中文分得那么清楚,所以韩国学生对不同的‘可能补语’的含义较难掌握.中文含意不同的‘可能补语’在韩文中基本上都是以‘动词+词尾“(不)能”’来表示,而在动词前面加副词或其它短语来表达不同的意思.比如‘吃得完’;‘吃得起’;‘吃得着’,韩文都是‘副词或短语+吃+词尾“能”’.而且,韩文这类句子中的补语可用过去式,所以会出现‘吃得完了(吃得完)’之类的错误.

7. 中文的‘简单趋向补语’在韩文中有类似的结构, 主要问题在于宾语的位置.
病句举例: **回来了家** (回家 (来) 了); **回去韩国** (回韩国去).
8. 韩文没有与‘是.....的’相等的句型, 而是以语调或不同的词尾表示强调. 因此韩国学生对甚么时候可以用‘是.....的’和甚么应该放在‘是.....的’中间较难掌握.
病句举例: **他是昨天出了甚么事的** (他昨天出了什么事);
我们是明天去参观的 (我们明天去参观);
我是昨天在食堂吃饭的 (我昨天是在食堂吃的饭)
9. 韩文没有‘把’字句, 韩国学生较难掌握. 不过‘把’字句的词序与韩文相近, 韩国学生应该比较容易理解. 问题主要在于何时应用‘把’、副词和能愿动词的位置、还有动词后的其它成分.
病句举例: **把中文努力学** (努力学习中文);
把作业做得好 (把作业做好);
把饺子吃在食堂里 (在食堂里吃饺子)
10. 下面再举一些语法和用词方面错误的例子. 大家想想是甚么原因造成的呢?
说这样 (这样说); **说我一件事** (告诉我一件事);
你可以受伤 (你可能受伤); **以前没认识他** (以前不认识他);
一个月半 (一个半月); **有点儿好** (比较好);
我不记住 (我没记住/我记不住); **不努力的时候就不能毕业** (不努力的话就不能毕业);
每天正在学习 (每天都学习); **有多学生** (有很多学生);
没有潮湿 (不潮湿); **信被写完了** (信写完了)

한국 학생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중국어 문법

- 한국어는 동사의 위치가 문장 맨 뒤에 오고 목적어나 주어는 동사앞에 오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중국어의 목적어 위치이다. 또 중국어에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붙어 또다른 동사의 형태를 가지는 동사가 있는데 이런동사는 문장에 따라 붙여쓸수도 있고 떨어뜨려 쓸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학생들은 이런 VO 동사를 그냥 단순한 동사라고 보고 <VO+목적어>순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예: 대학을 졸업하다. 너를 만나다.
결혼을 두번했다. 이일에 흥미가 있다.
너를 만나질 찾았다. 나에게 한권의 책을 주세요.
-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중국어는 목적어의 위치가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종종 주어와 목적어만 말하고 동사를 잊어버리고 안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 나는 먼저 버스를 탑니다.
내 사전은 오래된 것입니다.
5 반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한국사람 입니다.
- 한국어의 과거형은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므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이와 같을것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동사 뒤에 了만 쓰면 과거형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了는 과거형으로 쓰이는 용법이외에도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了를 사용할때 목적어를 어디에 놓느냐 하는것도 문제가 되곤 한다.
예: 나는 그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제밤 8 시에 나는 영화를 보고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했다.



4. 중국어의 정도보어(Complement of Extent)의 특수성때문에 한국인은 이런 문장을 만들때 한국어의 언어습관대로 부사+동사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를 잘 하다’의 중국어표현을 한국어형식대로 쓰게 되는데 이는 틀리는 것이다. 중국어는 동사(하다) + 得 + 형용사(잘)의 순서로 쓰여야만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은, 중국어의 ‘잘해’와 ‘잘 할께요’를 표현할때 정도보어와 능원동사를 사용해서 써야하는데 한국어식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잘(부사)+해(동사)’로 틀리게 표현할때가 있다.
예: 중국어를 아주 잘 말한다.
나는 밥을 잘 한다.
그녀는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
5. 중국어의 결과보어(Resultative Complement)는 한국어에서는(부사+동사)로 표현되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다 했다’는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다 했다’라고 표현하면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같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다. 중국어의 都做了 의 뜻이 (모두 다 했다)이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같은말이 문장에 따라 뜻이 달라지지만 중국어는 두가지를 분명하게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결과보어를 사용할때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혼동때문에 결과보어를 쓸때 많이 틀리게 되는것 같다.
예: 밥을 다 먹었다. 맞게 했다.
6. 중국어의 가능보어(Potential Complement) 용법은 한국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사+수 있다/수 없다’로 표현하고 또는 동사앞에 부사구나 부사절을 사용해서 그 뜻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다르다. [동사+得+ 가능보어] 로 표현한다. 또 가능보어는 과거형과 함께 쓰일 수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같이 쓸수 있다. 예를 들어 “다 먹을 수 있었다”와 같은 경우이다.
7. 중국어의 방향보어(Directional Complement)용법은 한국어의 구조와 비슷해서 많이 틀리지 않지만 문제는 목적어의 위치이다.
예: 집에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가다.
8. 중국어의 是----的 용법은 한국인에게 있어 매우 생소하다. 한국어는 어조를 높힌다든가 어미변화를 함으로써 강조한다. 그래서 어떤경우에 사용하는지 어떤내용이 강조되는지 어떤 것이 是----的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에게 어제 무슨일이 생겼던 겁니까?
우리는 내일 구경하러 갈 것이다.
나는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은거다.(식당에서 먹은거지 다른곳에서 먹은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
9. 把용법- 한국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중국어에서 把를 쓰게 되면 오히려 한국어 어순과 같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느경우에 이 용법을 써야하는지, 또 부사나 능원동사가 들어갈때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를 잘 명확히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동사의 형태도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런부분을 파악하지 못한다.
예: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다.
숙제를 잘 해라.
식당에서 만두를 먹다.
10. 그밖에 틀리기 쉬운 예: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한가지 일을 말해주다. 너는 다칠수 도 있어.
이전에는 그를 알지 못했다. 한달 반. 좀 나아졌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매일 공부하고 있다(매일 공부한다).
많은 학생들이 있다. 습기가 없다. 편지를 다 썼다.



你想知道研习所的老师对韩国和韩国同学的一点意见吗?

Teaching

教师园地

당신은 CLC어학원 교사들이 갖고 있는 한국 및 한국학생들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까?

韩彤宇老师 (整理)

老师们关于韩国的联想: 교사들이 생각하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人参鸡汤, 烧烤肉, 雪, 泡菜, 柚子茶, 凉面, 太极图案, 韩国字, 跆拳道, 《大长今》, 足球, 裴勇俊, 示威, 时髦, 济州岛.

삼계탕, 철관구이, 눈(겨울), 김치, 유자차, 냉면, 태극무늬, 한글, 태권도, <대장금>, 축구, 배용준, 시위, 최신식 유행, 제주도.

关于韩国同学, 老师们认为韩国同学的特点: 한국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 및 한국 학생들의 특징:

团结, 尊敬师长, 有礼貌, 家庭观念重, 直爽, 热情, 性急, 努力, 用功, 认真, 表达意欲强.

단결, 스승존경, 예의바름, 가족관념중시, 솔직, 친절, 급한 성격, 노력, 열심히 공부함, 진지, 표현력이 강함.

韩国同学学习中文所占的优势: 한국학생이 중국어 공부할때 유리한점:

一般韩国同学认识一定数量的汉字, 中韩两种语言中有许多共同词汇。对汉字的掌握和理解较没有汉字背景的学生有优势。韩国学生受儒家文化影响较大, 因此更能掌握汉语的深层涵义。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다. 한자와 한글사이에 많은 공통된 단어들이 있으므로, 한자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다른나라 학생에 비해 쉽게 한자를 정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리한점이 있다. 유교사상의 영양력 또한 커서, 중국어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中文学得好的韩国同学的共通之处: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학생들의 공통점:

用功, 每天复习, 课后也尽量找机会练习, 认真, 有耐性, 能按部就班地学习, 注意语法规则, 初学时不介意重复, 不怕犯错, 愿意尝试使用新学的词语。

열심히 노력, 매일 복습, 수업에서 뿐 아니라 항상 기회를 찾아 열심히 연습, 진지함, 끈기, 규정대로 착실히 공부함, 문법을 주의, 초급일 때 반복하는걸 개의치 말아야 함, 실수를 두려워 하지 않고, 새로 배운 단어를 항상 사용해본다.

一谈起韩国,你会联想到什么?

교사들이 생각하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人参鸡汤, 烧烤肉, 雪, 泡菜, 柚子茶, 跆拳道, 《大长今》, 足球, 裴勇俊, 示威, 时髦, 凉面.

삼계탕, 철관구이, 눈(겨울), 김치, 유자차, 냉면, 태극무늬, 한글, 태권도, <대장금>, 축구, 배용준, 시위, 최신식 유행, 제주도.



研习所四十周年聚餐 CLC 40th Anniversary Celebration Banquet

研习所于二零零三年十一月二十八日举行四十周年聚餐，有很多韩国学生及校友参加。当晚的气氛相当热闹，师生们难得聚首一堂并缅怀过去大家在研习所度过的难忘时光。韩国学生金度英同学担任大会司仪，金同学虽是只学过三个月的普通话的学生，但毫不怯场，能将所学完全发挥出来，难怪他在研习所举办的“中文大学国际学生普通话比赛”初级组别中获得冠军的殊荣。

Activities

中心动态

2003년 11월 28일, CLC 어학교에서 40주년 기념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많은 한국 학생들 및 학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말 즐거운 분위기로 어우러져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한국 학생중 김도영(金度英) 학생은 비록 보통어 초급반 학생이었지만 유창한 보통어 솜씨로 진행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중문대학국제학생보통어 경쟁시험'에서 초급반 부문 장원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金度英同学

部份韩国学生和老师的合照，当晚的照片可在以下的网址找到：
http://www.cuhk.edu.hk/clc/banquet_photo.htm

韩国文化交流活动 Korean Cultural Exchange

二零零四年五月二十七日于香港中文大学邵逸夫堂举行的韩国文化交流活动中，本所普通话组的安殷英同学担任韩国文化交流活动的司仪并和其它研习所的同学、老师及曾留韩的中大学生合唱两首中文和韩文名曲：“青春舞曲”和“阿里郎”。



韩国学生、老师及曾留韩的中大学生大合唱。

2004년 5월 27일, 홍콩중문대학에서 진행된 한국문화교류행사로 현재 본교에서 보통어를 배우고 있는 안은영(安殷英)학생이 진행을 맡았고, 교사와 학생들 모두 함께 '청춘무전(青春舞曲)' 과 '아리랑(阿里郎)'을 합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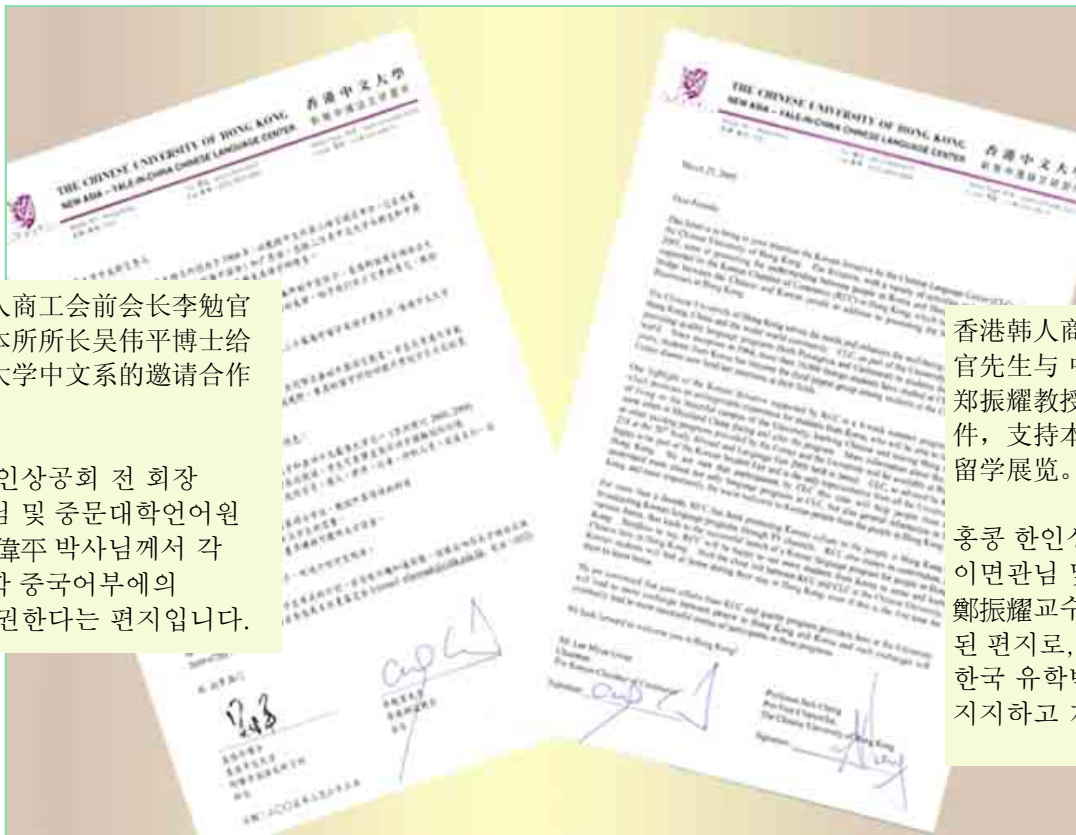
安殷英同学担任司仪



前任驻香港大韩民国总领事馆总领事姜根铎先生(左)和前任香港中文大学校长金耀基教授(右)。

제 20 회 해외 유학·어학연수박람회(춘계)

Seoul Coex 3월 26-27 일



香港韩人商工会前会长李勉官先生与本所所长吴伟平博士给各韩国大学中文系的邀请合作的信件。

홍콩 한인상공회 전 회장 이면관님 및 중문대학언어원 소장 吳偉平 박사님께서 각 한국대학 중국어부에의 협력을 권한다는 편지입니다.

香港韩人商工会前会长李勉官先生与中文大学副校长郑振耀教授共同签署的信件，支持本所参加韩国学生留学展览。

홍콩 한인상공회 전 회장 이면관님 및 홍콩중문대학 鄭振耀 교수님의 공동서명된 편지로, 본 언어원이 한국 유학박람회 참가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研习所的业务发展主任麦雪芝女士于三月二十六、七日在韩国首都首尔为本所宣传及推广课程，并预先印制大量的韩文小册子及宣传品，这次的“韩国学生海外升学展览”有数百个国家的学校参加，而许多当地的学生对本所提供的广东话及普通话课程均感兴趣，并查询有关课程内容及报名手续等。麦女士顺道探访当地的大学并介绍所内的课程。

参展心声

这是我首次到韩国参展，心情战战兢兢。幸得到副校长和所内教职员的祝福和当地热心的工作人员协助，特别感谢前韩人商会会长李勉官先生及香港经济贸易代表部首尔顾问李熙景先生，给予很多宝贵意见与协助。2日展览共有 28000 人到场参观，参展单位约三百多个，包括 34 所中国及香港院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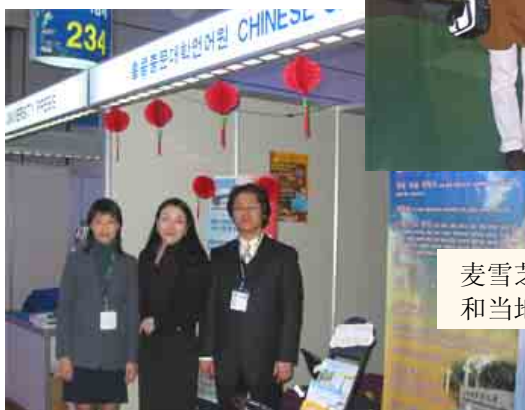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의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홍콩과 한국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무사하게 끝나 다행입니다. 특히 한인상공회 전 회장 이면관님 및 홍콩경제 무역 대표부 서울컨설턴트 이희경님께 감사드립니다.



香港经济贸易代表部首尔顾问李熙景先生(右)和麦雪芝女士(左)合照。



麦雪芝女士(左)于会场内和当地的工作人员合照。



新春晚会 CLC Spring Party

Activities

中心动态

本所每年均举办新春晚会，节目内容丰富，有关于中国文化的活动，如写挥春、猜字谜、茶艺、折纸等、也有显现学生多才多艺的综合表演，包括舞狮、舞蹈、唱歌、结他、绕口令及短剧等。师生们亦乐于烹调自己国家的美食佳肴，让我们大快朵颐。

学生感想:

매해 신년 행사로, 중국어 실력을 뽑내는 학생들의 장기 자랑은 물론,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입은 전통의상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파티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 다같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누며, 다른 나라의 민족춤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每年一次的活动，学生用学到的中文来表演，还有能看从不同的国家来的同学们穿民族服装的样子，是很特殊的晚会。老师们和学生都一起一边吃大家带来的菜，一边聊天。大家一起学其它国家的民族舞，一起跳，过得非常高兴。



穿上韩国民族服的学生和老师合照

韩国学生赵镇善同学(左)担任本年度新春晚会司仪



写挥春



舞狮



所长吴伟平博士(左)和韩国学生及李兆麟老师(右)合照

春季旅行 School Outing

研习所的春季旅行于三月十九日举行，前往三个热门的景点：山顶、浅水湾及赤柱。同学们一面练习语言，一面欣赏美丽的维港景致。在春、秋季本所分别安排旅行活动让学生参与，藉此加深他们对香港的认识和拓阔学习语言的环境。学生亦积极参与，好好把握这个练习的机会。

学生感想:

한학기애 한번 가는 소풍,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홍콩을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홍콩의 각 명소를 견학도 하며, 홍콩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每个学期一次的旅行，对从不同的国家来的同学来说是很好的仔细了解香港的机会。趁着参观香港的名胜古迹的机会，也能享受香港美丽的风景。



大屿山



山顶

每个学期研习所均安排广东话和普通话桌的聚会，让学生认识更多所内的老师和来自不同国家的学生，交流、分享学习语言上的心得，故每次学生均积极参与，并带来美食佳肴和同学、老师一起品尝。

学生感想:

매 학기중 있는 행사로 중국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 즐거운 점심시간 입니다. 비록 한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와 친해질 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语言桌是每个学期的大型活动之一。利用中午的时间，老师和学生一起，一边吃饭，一边聊天。虽然一个小时的时间比较短，但是是一个能互相认识的好机会。



普通话桌



广东话桌

最新消息 Updated Information

研习所于四月份推出多项广东话和普通话新课程，适合本地、国内及外籍人士参加，详情可向研习所索取资料或在以下网址下载 (http://www.cuhk.edu.hk/clc/ssp_brochure.htm) 「普通话及广东话课程 2005」小册子。另本所亦安排数天的课程咨询日，为有兴趣报读的人士介绍研习所的课程，提供相关的数据。

课程咨询日 2005 년도 교과지도과정 설명회 2005 Information Seminars	地点 장소 Place	时间 시간 Time
2005年5月25日(星期三) May 25, 2005 (Wed)	香港中文大学新雅中国语文研习所 Chinese Language Center, CUHK	2:30-4:30pm
2005年5月31日(星期二) May 31, 2005 (Tue)	美国银行中心 Bank of America Center	12:00- 2:00pm
2005年8月17日(星期三) August 17, 2005 (Wed)	香港中文大学新雅中国语文研习所 Chinese Language Center, CUHK	2:30-4:30pm
2005年8月19日(星期五) August 19, 2005 (Fri)	美国银行中心 Bank of America Center	12:00-2:00pm

研习所课程的韩版小册子已印制完成，如欲下载数据，请到以下网址：
http://www.cuhk.edu.hk/clc/k_booklet.htm。

소책자 다운로드 내용 Content:

- 학생국적 및 졸업생 Student nationalities and alumni
- 학생의 의견란 Students' feedback
- 홍콩중문대학 및 언어원의 소개 Introduction on CUHK and CLC
- CLC 중국어 프로그램의 특징 Feature of CLC programs
- 스태프 Staff
-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구조 Program structure
- 여름학기 프로그램 Summer Program
- 정기 프로그램 Regular Program
- 컴퓨터화된 회화 실력 평가 Computerized Oral Proficiency Assessment
- 중국어를 배우는 재미 It is interesting to learn Chinese language

